

새로운 종책모임 '백상도량' 문 연다

舊 보림회 발의... "94년 개혁 의지 재집결할 것"

새로운 종책모임인 '백상도량' (운영위원장 범해)이 9월 1일 공식 창립됐다. 舊 보림회가 발의한 백상도량은 배포한 창립선언문을 통해 "고위직 승려들과 관련된 기대 밖의 얘기들이 사회인론에 빈번히 회자되고 총무원장의 소임을 오로지 세로써 전유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단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음을 우려하고 애종심과 정명의 지혜를 모아 이 혼란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백상도량은 △승가의 화합과 지계정정에 솔선수범하고 △1994년의 개혁불사를 계승하며 △종책 제시를 통해 종단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또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의 여법한 회합에도 기여한다는 4가지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총무원장 상으로 백상도량은 "지계와

행화가 사부대중과 세속 사회에 귀감이 되고 지견과 경륜을 갖추되 공심에 철저함이 검증된 분"을 꼽았다. 운영위원장인 범해 스님은 "지금 상황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수습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늘 해오던 쇄신운동 같은 캠페인이 아니라 총무원장의 권한 축소, 교구본사의 자율성 확대, 직할 교구의 분구, 사법기관의 쇄신 등과 같은 제도개혁 제시가 수습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선 범해 스님은 "지난 중앙총회에서 후보에 대한 공개청문회 도입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승가고시 논술작성법은 특히 지계와 행화의 검증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2, 3급 승가고시 접수

조계종이 올해 2, 3급 승가고시 원서를 접수받는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 3급 승가고시 원서를 접수한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되는 조계종 2,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은 승가고시 응시원서와 수행이력서, 그리고 수행이력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적교구본사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고시위원회는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의 논술고사 준비가 용이할 수 있도록 논술작성법도 제공한다. 승가고시 논술작성법은 8월 26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종일 기자

불교평화 댓글 진상 조사 촉구

조계종, 23일 관련 공문 송부... "불교단체 직원이 종단 대표 비하"

조계종이 종단과 불교를 폄훼하고 특정 스님을 비방한 댓글과 관련해 불교단체에 진상 조사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조계종 홍보부는 8월 27일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불교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악성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그 중 한 명이 'c' 불교단체 실무 책임자인 A씨로 밝혀졌다"며 "본인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댓글 내용은 개인 신상이 관련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조계종은 관련단체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8월 23일자로 송부했다. 조계종은 총무부장 명의의 공문에서 "불교단체의 구성원이 악명을 악용해 종단 대표자에 대해 허위 사실과 악의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중격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전

한다"며 "이는 불교 단체의 구성원으로 응남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불교인으로 올바른 자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9월 4일까지 상응하는 조치와 답변을 촉구했다. 공문관 홍보부 팀장은 "그간 악성적인 비하와 모독이 담긴 댓글 10건 정도를 수사 의뢰에 신원을 파악했다.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소를 취하해 왔다"며 "하지만 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의 실무 책임자급 직원이 종단 대표자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익명성에 기대어 게재하는 것은 응남될 수 없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계 언론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댓글에 대해 개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며 댓글 작성자도 건전한 의견 개진으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팔만대장경 판각지 학계 논쟁 '재촉발'

박상국 원장, 남해군 주최 세미나서 '전량 제작' 주장

1236년부터 10년 넘게 걸린 대장경 불사. 하지만 정작 어디에서 '팔만대장경'이 제작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경 판본이 남해에서 전량 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판각 장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8월 27일 남해군과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개최한 '남해, 고려대장경 탄생의 비밀을 풀다'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대장경 조판 장소를 둔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학계에서는 강화도와 진주, 남해, 경주 등에서 고려대장경이 제작돼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해서 경판 전량 판각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원장은 "팔만대장경은 모두 남해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고려대장경 '종경록' 27권에서 '분사남해대장도감개판(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 기록이 발견됨에 따라 강화와 남해 공동 제작설이 힘을 얻어 왔다. 현재 문헌상 '대장도감'의 위치는 불확실하지만 '분사 대장도감'은 남해에 있었던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박 원장은 "고려대장경 간기(刊記) 조사에서 대장도감판과 분사대장도감판이 동일한 장소에서 판각됐음이 드러났으며 각수(刻手) 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며 "그 장소는 남해였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대장경 간행 기록을 전수 조사(1496종 6570권)해 '분사대장도감'이라고 판각된 500권 중 473권이 원래 '대장도감'이란 부분을 상감(象象) 기법으로 파내고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 원장은 "(불설의)죽경'의 경우 앞권은 '분사 대장도감', 뒷권은 '대장도감'에서 만들었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판각 장소가 동일한 곳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243년 이후 제작에 참여한 정안의 공로를 강조하기 위해 '대장도감'을 '분사 대장도감'이란 이름으로 새로 불렀고, 이 때

강화 등 각지 제작이 일반적

최근 지자체 '남해설' 조명

지역별 학자마다 주장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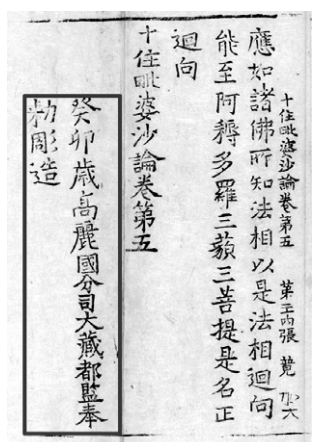
문에 대장경을 만든 직후 해당 시기의 목판에서 '대장도감' 부분을 '분사 대장도감'으로 고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역 일대서 판각 주장

하지만 학계에서는 남해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대장경이 판각됐을 것이란 입장이 많았다.

최원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남해 분사대장도감에서 중점적으로 판했지만 전량 판각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강화 대장도감 설치 시 분사



대장도감이 새겨진 '십대승론석(攝大乘論釋) 권 제9' (좌)과 분사대장도감이 새겨진 '십주비파사론(十住毘婆沙論) 권5' (우). 분사대장도감의 간기 중 '分司大藏都監奉' 부분의 크기가 작다. 박상국 원장은 이 부분이 원래 있던 '大藏都監奉' 부분을 파내고 '分司'를 추가해 새겨 끼워넣은 상감기법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장도감을 설치해 실질적인 판각이 분사 대장도감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 기록상으로는 1243년 이후 분사대장도감이 확인된다"며 "강화도에서 본래 판각 하려고 했으나 대몽항쟁으로 못하였기에 남해에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최영로 팔만대장경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대장경 조성이 시작된 1236년 이전 이미 경주지역에 대장경판 조성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었으며 1251년 4월 <불설아미타경(과 같은 경판이 경주에서 판각됐다"고 주장했다.

최원주 동의대 사학과 교수도 "분사 대장도감은 남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으며 윤경진 경성대 사학과 교수는 "남해의 분사 대장도감은 대장경의 일부만 제작했다"고 말했다.

현대 지역발전에도 대장경 활용

학계에서는 강화에서 대장도감이 위치해 지휘를 맡고 여러 사원의 협력으로 분담 조판해 대장경 조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일기 중앙대 교수는 "대장경 조성 당시 고려정부는 임시수도를 강화로 천도했기 때문에 총괄기구나 대장도감이 상당기간 존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동국대 박물관장 재직 당시 강화 선원사지 발굴조사를 진행한 홍윤식 동국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는 "대장경 종경록에는 분사대장도감이 남해에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기에 남해에서 일정부분 판각이 됐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며 "학술적 연구와 함께 남해군과 강화군 등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초발심 원력으로 정법 당간 세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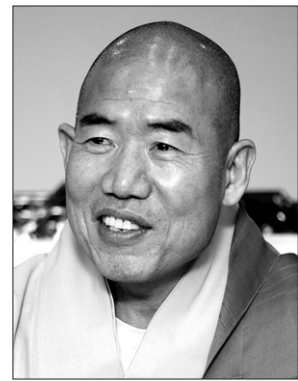
前 총회위원장 보선 스님, 30일 공식 출마 선언

前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보선 스님(사진)이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밝혔다. 舊 무량·무차회·백상도량 3개 종책 모임이 추대로 이뤄진 만큼 기자회견 자리에는 각 모임의 수장인 범등 스님(前 호계위원장), 영담 스님(중앙총회위원장)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보선 스님은 출마의 변을 통해 "우리 불교계는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많은 중도와 재가자가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불교 대중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법의 정신을 시대와 이웃 대중에게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화엄경>의 한 구절인 '어둠 속의 보물들

등불이 아니면 밝힐 수 없듯이 불법을 설치 않으면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깨달을 수 없다'를 인용한 보선 스님은 "초발심의 원력으로 천수천안의 관음보살의 길을 실천한다면 불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소납은 불자와 국민이 내려 주신 죽비와 화두를 들고 정법의 당간을 세우려 한다. 비록 수행력과 지혜가 부족하지만 사부대중의 원력을 받들어 34대 총무원장 소임을 짊어지려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자신의 종책 주요 과제로 △정경과 자비의 수행중흥 구현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총무원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승불교정신의 시대적 구현 △승가상 정립과 교육의 혁신 △수도권 포교와 교구의 활성화 △시대에 부응하는 종단 기구의 개편 등을 제시했다.



또한 스님은 "시대적 책무를 피하지 않겠다. 세속적 이해관계가 아닌 종헌 종범에 입각해 중도가 공감하는 종단 운영을 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중앙 총회, 현장 활동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 공감을 이뤄 구체적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배석한 스님들의 지지발언도 이어졌

다. 범등 스님은 "보선 스님은 시골 고찰의 노 스님 같이 가장 스님 같은 분이다. 그래서 원력을 세워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영담 스님은 "제왕적 총무원장을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가 됐다"며 "보선 스님도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소임을 보신 분으로 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보선 스님은 자신의 그간의 소신에 대해서 답했다. 연합 집행부 구성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계파와 문중을 떠나 종헌 종범에 입각해 모든 행적과 인사를 처리하겠다"며 "지지·비지지 세력을 모두 안을 것이다. 불교 발전에 좋은 정책 방안들이 있다면 집단 지도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엄·법화회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모든 문은 열려 있다. 뜻만 맞다면 그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

대한불교대학 2013학년도 하반기 등록생 모집

초기불교의 학문을 연구하고 전파하기 위한 전법사와 수행자의 진로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개강한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인 대한불교대학은 2013학년도에 개강하여 경남진주학습관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경남과 부산지역의 출석과정생 40명, 호주, 베트남, 중국 등 해외교민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등 경향각처의 사이버과정생 40명, 합계 80명으로 출석강의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대학의 학생회 구성은 일반 재가자 70명, 수행자 10명으로 구성되어 년 간 42주 84강좌로 2년 4학기의 과정을 1년 전반기, 후반기로 학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등록 및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출석과정 - 50명
사이버과정 - 50명 (합계 100명)
- ◆모집기간 : 2013년 8월 15일 ~ 9월 14일까지 (1개월)
- ◆수강기간 : 2013년 9월 7일 ~ 2014년 7월 24일 (년 42주 84강)
- ◆졸업일자 : 2014년 8월 9일(예정)
- ◆교육장소 : 경남 진주학습관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18-3번지
(사)감로심장회관 3층 진주거사리회관
-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3시 30분~18시까지 (4시간30분)
- ◆교과과목 : 초기불교기본교설, 초기불교교단사, 인도철학사, 초기불교사회사상사, 경장, 율장, 논장, 불교사, 상좌불교의례, 위빿사나 명상, 응용불교
- ◆교수진 : 마성스님, 나냐로까스님, 이철현, 임승택, 김재성, 김재영교수

※ 2013학년도 하반기 교과목 및 교수진

| 과목명 | 담당교수 |
|-----------------------------|-----------------|
| 經藏(Sutta-pitaka) | 나냐로까스님, 마하보디선원장 |
| 律藏(Vinaya-pitaka) | 이수창(마성)교수 |
| 論藏(Abhidhamma-p.) | 김재성 교수 |
| 佛敎史(History of Buddhism) | 이철현 교수 |
| 上座佛敎儀禮(Rites of Theravaada) | 이수창(마성)교수 |

- ◆2013학년도 등록금 : 년 48만원 (년납 44만원, 2회납 24만원) (2013학년도에 한정함)
- ◆등록원서 : 대한불교대학 홈페이지 커뮤니티 학사자료실 탑재
- ◆등록원서 접수처 : 팩 스 : 055)854-3067
이메일 : asrhkdqntk@daum.net
- ◆등록금 납입계좌 : (농협) 351-0113-9532-13 (대한불교대학 광불사)
- ◆문의 : 대학본부 055)854-8424 / 경남학습관 055)759-6989
휴대폰 010-6796-0106 (학장)
016-585-3114 (교부처장)
- ◆주소 : 대 학 본 부 : 경남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산113-4번지
경남진주학습관 :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18-3
- ◆홈페이지 주소 : www.dbckorea.kr

대한불교대학 교무처 www.dbckorea.kr